

올림픽을 전후해 사상 최대의 외국관광객이 한국에 고인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춘기생관으로 인한 AIDS 감염 문제가 사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81년 미국에서 첫발견된 AIDS는 오늘날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환자를 발생시키면서 전 세계를 주위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27명의 환자 및 한체 양성자가 발생, 그중 4명이 이미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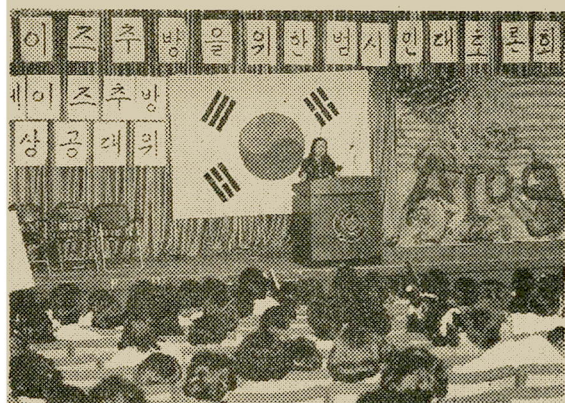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AIDS 환자 양성판정자를 10명의 경우처럼 동성연애자나 마약중독자가 아니라 대부분 주한미군을 상대로 하는 유란성이나 유란성으로 인한 AIDS 확산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귀착됨을 보여준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사회 실현과 사회의 연성의 전화를 저해하고 한성대표자협의회와 한성대표자협의회 10개 단체로 구성된 「AIDS 추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대위」) 3일 서울을 대표로 이스홀에서 개최한 「AIDS 추방을 위한 범시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올림픽의 그늘

AIDS 공포

10개사회단체 「범시민 대토론회」 개최



올림픽을 전후해 AIDS 확산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외국인과 주한미군에 대한 AIDS 감염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검진의 의무화 재촉구

관광객 통한 감염 크게 우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사회 실현과 사회의 연성의 전화를 저해하고 한성대표자협의회와 한성대표자협의회 10개 단체로 구성된 「AIDS 추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대위」) 3일 서울을 대표로 이스홀에서 개최한 「AIDS 추방을 위한 범시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사회 실현과 사회의 연성의 전화를 저해하고 한성대표자협의회와 한성대표자협의회 10개 단체로 구성된 「AIDS 추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대위」) 3일 서울을 대표로 이스홀에서 개최한 「AIDS 추방을 위한 범시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사회 실현과 사회의 연성의 전화를 저해하고 한성대표자협의회와 한성대표자협의회 10개 단체로 구성된 「AIDS 추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대위」) 3일 서울을 대표로 이스홀에서 개최한 「AIDS 추방을 위한 범시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사회 실현과 사회의 연성의 전화를 저해하고 한성대표자협의회와 한성대표자협의회 10개 단체로 구성된 「AIDS 추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대위」) 3일 서울을 대표로 이스홀에서 개최한 「AIDS 추방을 위한 범시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